

세계의 당뇨병 소식

미국 - 고혈당치를 가진 뇌출혈환자 사망 위험 높아

고혈당증을 가진 뇌출혈 환자가 정상 혈당치를 가진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 연구자인 인디애나 의대 신경과 학 교수인 윌리엄스 박사에 의하면, 근 5년간 입원한 뇌출혈 환자 656명의 전자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혈당증을 가진 뇌출혈 환자가 정상 혈당치를 가진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뇌출혈 환자 중 40%가 높은 혈당치를 보였고 그들이 당뇨병으로 진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조절되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스 박사와 연구팀에 의하면 높은 혈당치를 가진 뇌출혈 환자는 정상 혈당치를 가진 환자에 비해 30일내 그리고 1년내, 5년내 사망률이 높았다. 높은 혈당치를 가진 환자는 정상 혈당을 가진 환자에 비해 병원에 더 오래 머물렀으며, 더 높은 병원비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 중, 환자의 고혈당치가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90% 이상의 환자가 입원 중 여전히 높은 혈당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뇌출혈에 대한 치료가 어려웠으나 현재는 혈전용해제로 뇌출혈로 인한 상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이 새로이 발표된 연구는 고혈당증같은 대사성 질환이 뇌출혈 후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윌리엄스 박사는 이 연구가 당뇨병을 가진 뇌출혈 환자에서 철저한 혈당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 우량아가 장래 당뇨병 발병률 낮아

태어났을때 키가 크고 체중이 더 나가는 아기가 성인이 되었을때 제 2형 당뇨병을 가질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결과가 학술지 미국 임상 영양학지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상체중을 갖는 아기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 당뇨병의 발병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아이슬랜드 대학의 버지스도티르 박사는 저체중아가 나중에 당뇨병을 가질 확률이 큰 이유가 자궁내의 부적절한 영양이 후에 영구적으로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주게 돼 나타난 결과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슬랜드는 세계에서 태어날 당시의 평균 아기체중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인데, 이 지역은 높은 비만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제 2형 당뇨병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팀은 아이슬랜드에 사는 나이 33~65세 사이의 성인 남녀 4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그들이 태어날 당시의 체중과 키에 관한 정보를 추적했고 또 제 2형 당뇨병의 전임상 단계인

높아진 혈당을 감지할 수 있는 당부하검사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태어났을 때 키가 크고 체중이 더 나갔던 남자는 더 나은 당부하를 나타냈다. 태어날 당시 고체중이었던 여자 역시 체중목표로 부합시켰을 때 제 2형 당뇨병 발병확률이 낮음이 발견되었다.

“저체중아의 출생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성인비만과 연관된 질환발현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는 제 2형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지도 모른다”고 이 연구는 결론 지었다.



스코틀랜드 - 임신 합병증은 당뇨병과 심장질환에 적신호

스코틀랜드 연구팀은 임신 기간중 합병증을 일으켰던 여성들이 이후 당뇨병과 심장질환 발생에도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저체중아를 출산했거나 복합적인 합병증을 보였던 사람들의 경우엔 당뇨병과 심장질환에 대해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스코틀랜드 연구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서, 이들은 이러한 경력이 있는 여성들을 구별해 이들에게 질병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팀은 임신기간 중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했던 여성들의 경우, 이후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임신성 당뇨병과 제 2형 당뇨병 모두, 일부는 유전적 질환에 의한 것이다. 이 두 질환 모두는 혈당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해 내지 못한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산부의 체중과 연관이 있으며 임신 후반부에 임산부 자신의 대사에 필요한 요구가 최대치에 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는 출산과 함께 임신성 당뇨병은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중 1/3은 나중에 제 2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연령증가로 인한 체중증가가 이 질병에 대한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팀은 두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검사하고 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금연 및 운동 등과 같은 기초 예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의사협회 폭스 박사는 ‘저체중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아무런 혈관질환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여성의 경우에는 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저체중아의 출산이 이미 혈관질환 초기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